

아무도 가지 않은 길

2024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Purme Foundation
Annual Report



CONTENTS



03 인사말

빛나는 순간

- 06 2024 푸르메재단 10대 뉴스
- 08 숫자로 보는 2024년
- 10 재정보고
- 12 푸르메재단 20주년을 맞으며
- 14 푸르메의 참 스승 | 조무제 前 대법관

가치를 수확하는 공간

- 20 개원 2주년 맞은 푸르메소셜팜·무이숲
- 22 푸르메소셜팜 사회적 성과 측정 연구 | 중간평가
- 24 인터뷰 | 푸르메소셜팜·무이숲 직원 3인
- 26 대담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함께 이룬 성장

- 31 장애가족지원 사업
- 36 미국에서 날아온 응원 메시지 | 이정후 선수
- 38 이용자 중심 맞춤형 재활환경 구축
- 40 줄리안·우리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방문기
- 42 생애주기 따른 지역사회 복지사업 강화
- 44 푸르메와 사람들 | 광재복 관장
- 46 장애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IoT
- 47 그 외 주목할 만한 성과
- 48 푸르메와 함께 자랐다 | 김윤지 선수

함께 나눔

- 52 2024 모금 캠페인
- 54 함께하는 이웃 | 기부자
- 56 함께하는 이웃 | 파트너
- 58 인터뷰 | 푸르메천사가게

푸르다, 푸르메

- 62 푸르메재단 소개



2024 푸르메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5년 3월 24일

발행처 푸르메재단 | 발행인 백경학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4층

T 02-720-7002 | F 02-720-7025

홈페이지 www.purme.org

기획·편집 푸르메재단 마케팅팀 | 디자인 그래픽오션

표지 사진 잼잼레코드 김지애

2024년 한 해 동안 푸르메재단은 장애인 재활과 자립을 위한 핵심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발달장애 청년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은 매출을 크게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모델로 인정받았고,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선정돼 재활치료 지원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푸르메재단과 각 산하기관이 제공한 재활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고용 지원 프로그램 등은 많은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 없이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바로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기부자님들의 따뜻한 손길은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사는 사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재활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푸르메재단은 설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를 위한 전문 재활병원이 한 곳도 없던 시절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부터 국내 최초의 스마트팜 기반 장애인 일터인 푸르메소셜팜 건립까지, 푸르메재단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년간 푸르메재단이 일궈온 모든 일은 여러분과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푸르메재단을 아끼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25년 봄
이사장 강지원

빛나는



- 06 2024 푸르메재단 10대 뉴스
- 08 숫자로 보는 2024년
- 10 재정보고
- 12 푸르메재단 20주년을 맞으며
- 14 푸르메의 참 스승 | 조무제 前 대법관



순간



2024 푸르메재단 10대 뉴스

'시각장애이용 ICT 지팡이' 등 아이디어 빛났다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개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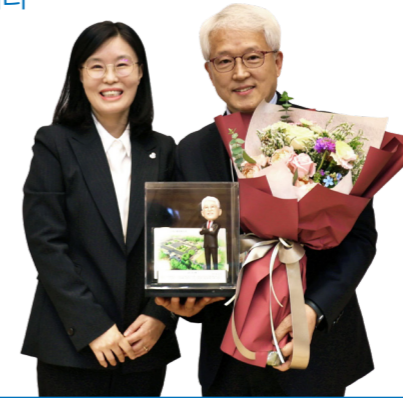
#2 故이옥순 여사 유산 기부
고객기부자모임
'더미라클스'
가입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다시 도약합니다

최미영
신임관장
취임

#6



장애어린이 가족을 위한 감동의 무대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7



#3
속속 성장하는 푸르메소셜팜,
매출 30억 원 돌파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선정

#4



#5



푸르메재단,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

디자인의 힘으로
벽을 허물다

누구나 벤치,
서울 내
23곳 설치

#8



#9

장애어린이와 부모의 마음까지 보듬는
포괄적 지원사업으로
총 23억 원 지원



2배 커진 규모로 진행된
미라클365
푸르메런

#10

숫자로 보는 2024년

총 지원인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은 장애당사자와 가족



1,031,974 ^명

재활의료 사업

맞춤형 재활치료와 첨단 보조기기 서비스 등을 적기에 지원받아 건강한 삶을 살아간 장애당사자



256,177 ^명

자립사업

우수한 직업훈련과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아 당당하게 사회로 나아간 장애당사자



44,255 ^명

장애가족 지원사업

의료·재활, 사회적응·자립, 교육·문화·여가 등을 지원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참여한 장애당사자와 가족



1,405 ^명



지역사회복지사업

생애주기별 복지·지역연계 서비스, 체육·독서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간 장애당사자



730,137 ^명

푸르메 이웃

2024년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나누며 희망을 선물한 기부자와 자원봉사자



36,207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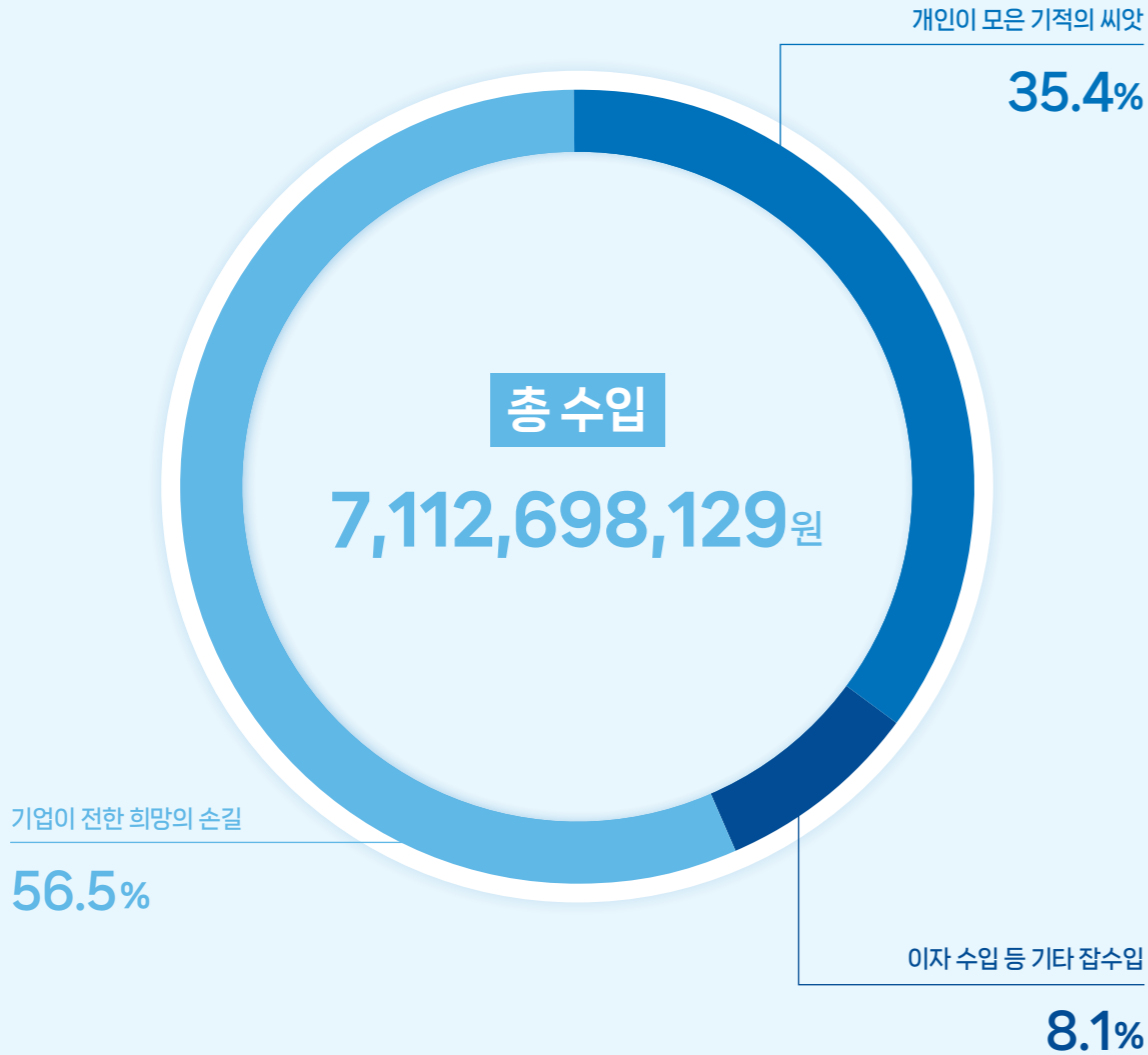
협력파트너

2024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푸르메와 함께 도운 기업



1,213 ^곳

2024 푸르메재단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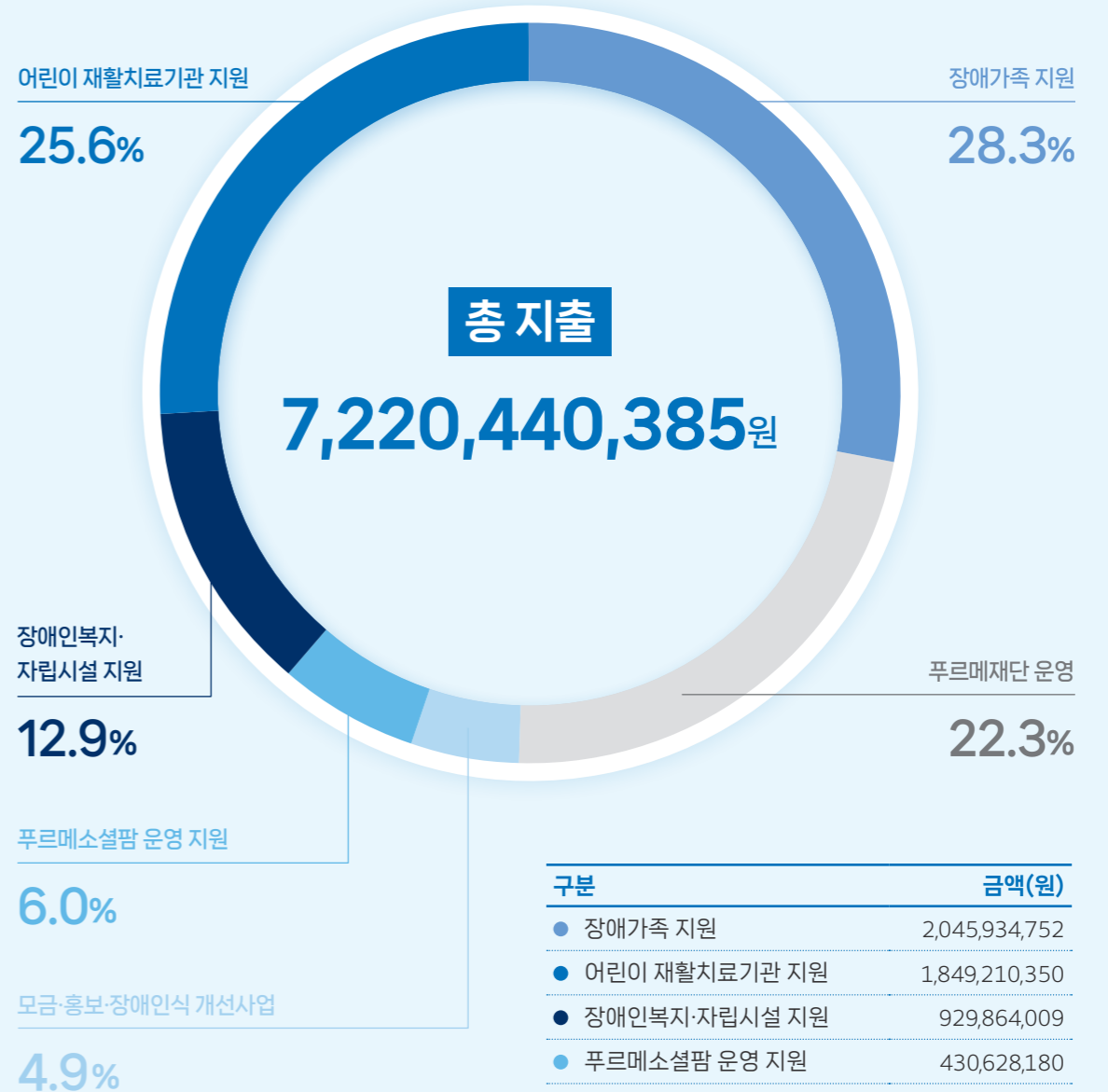
구분	금액(원)
● 개인 기부 개인기 모은 기적의 씨앗	2,518,236,734
● 기업 기부 기업이 전한 희망의 손길	4,015,021,505
● 기타 수입 이자 수입 등 기타 잡수입	579,439,890
총액	7,112,698,129

투명한 결산

푸르메재단은 2024년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 기부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고자 연 3회의 정기이사회 등을 통한 엄격한 내부 심사와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 7년 연속 최고 등급

푸르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로부터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효율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장애인복지·자립시설 지원

12.9%

푸르메소셜팜 운영 지원

6.0%

모금·홍보·장애인식 개선사업

4.9%

구분	금액(원)
● 장애가족 지원	2,045,934,752
● 어린이 재활치료기관 지원	1,849,210,350
● 장애인복지·자립시설 지원	929,864,009
● 푸르메소셜팜 운영 지원	430,628,180
● 모금·홍보·장애인식개선사업	351,181,697
● 푸르메재단 운영	1,613,621,397
총액	7,220,440,385

푸르메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으며

2025년 푸르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자 중심 재활병원을 세워 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통을 줄여 주겠다'는 백경학·황혜경 부부의 결심에서 시작된 푸르메재단. 모두가 무모하다고 여겼지만, 놀랍게도 푸르메재단은 지난 20년간 목표한 일의 대부분을 이뤄 냈습니다. 2012년 재단과 종로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선 푸르메센터를 건립한 데 이어 2016년 서울 마포구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하고, 2022년 경기도 여주에 발달장애 청년 일터인 푸르메소셜팜까지 완공했습니다. 백경학 상임대표는 "힘겹게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싶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며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까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꿈 하나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금세 깨달았습니다. 재활병원을 세우기 위해 백방으로 자문을 구하러 다녔지만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에서조차 "우리도 적자를 감당 못 하는데, 민간 재단이 어떻게 병원을 짓고 운영하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백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조금 수정했지요. 10년 안에 작은 재활의원을 먼저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삶에 밀착하여 재활을 도와줄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년 내에 재활병원을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목표를 수정했어도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건립비용 모금도 힘들었지만, 다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재활의원을 짓겠다고 하니 혐오시설이라며 반대서명이 일어나는 등 지역 주민의 반대가 컸습니다. 이들에게 먹살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공청회를 열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백 대표는 "고통 받는 장애인과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일했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장애인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고비를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푸르메재단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를 이뤘습니다. 재단 설립 2년 뒤인 2007년에 국내 최초의 민간 장애인 치과인 푸르메치과를, 2012년에 푸르메재활센터(現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쉽지가 않았던 백 대표가 가장 설렜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2016년 3월 28일에 처음 병원 문을 열고 한 달간 시범운영을 했어요. 어린이들이 치료받으러 출지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성인병원에 다녀야 했던 어머니들이 저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주말마다 병원에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푸르메가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장애어린이와 부모의 삶 생각하며 걸어온 20년



절실할 때마다 찾아온 기적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백경학 대표는 고마운 분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가장 고마운 분들은 재단 설립 초기부터 푸르메를 믿고 기꺼이 나눔을 실천한 기부자들입니다. 푸르메재단을 세우는데 주춧돌을 놓아 준 부인 황혜경 기부자부터 푸르메센터를 건립할 때는 이철재 기부자가, 병원 세울 때는 고 김정주 넥슨 회장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푸르메소셜팜을 만들 때는 이상훈 장춘순 부부가 기적처럼 나타나 주었습니다.

"모든 기부자가 감사한 인연이지만, 김주기 기부자님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파독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병을 얻어 장애인이 된 분인데, 2007년 이가 아파서 푸르메치과에 오셨어요. 이가 아프면 단순히 음식을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려워 대인관계가 무너지고 밖에 나가기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지요. 푸르메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뒤 그분의 삶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34만 원을 지원받는 상황이었었는데, '치료해 줘서 고맙다'며 2만 원 정기기부를 신청하셨어요. 못 받는다고 거절했지만 기어코 1만 원 정기기부를 하셨죠. 저희가 하는 일의 가치, 어려움 속에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김주기 기부자

발달장애인 위한 일터 넘어 노후 문제까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

스무 살 청년이 된 푸르메재단은 이제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봅니다. 우선 목표는 푸르메소셜팜을 발달장애 청년 일터로서 지속 가능한 모델로 계속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백 대표는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모델로 하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국책사업이 됐다"며 "푸르메소셜팜도 우리나라에 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 청년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수도권에 제2농장을 비롯한 여주 농장의 생산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일도 백 대표와 푸르메재단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백 대표는 "현재 서른 살 전후인 푸르메소셜팜 직원들이 은퇴하기까지 20년 정도가 남았다"며 "이들의 노후를 어떻게 돌볼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20년 후를 안심하고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으로 장애어린이가 세상으로 나아갈 문을 열고, 장애청년이 세상을 살아갈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바꿔 왔듯,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중심에도 푸르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푸르메의 참 스승 조무제 前 대법관

2024년 9월, '청렴 판사' 조무제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역을 출발한 택시는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쉬지 않고 올라가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큰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방문 연락을 받은 조 전 대법관 부부가 로비에 나와 있었습니다.

"바쁜 분이 와이 먼 길을 오셨습니까?"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조무제 전 대법관이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조무제 전 대법관 부부



“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높은
차원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외부의 변화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정성을 다해 재판에 임해 주세요.
”

조무제 전 대법관이 2004년 퇴임식에서 후배 판사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조무제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된 1993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전국 고위 법관 중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정치적인 외압이나 재물 앞에 초연했기에 '청렴 판사', '청빈 법관'이라는 별명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기억합니다.

사표(師表)가 되신 어머니

조무제 전 대법관은 5남 2녀 중 막내아들로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고향은 경남 하동이었지만 열악한 위생 환경과 의료 시설로 첫째와 둘째 아들을 잇따라 잃자, 부모님은 고향을 등지고 진주로 이사했습니다. 병약했던 아버지는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되자 무척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학비가 싼 초등학교를 찾아 전학을 다니던 소년 조무제는 어머니의 농사를 돕기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농사를 짓다나중에는 전 재산을 팔아 자식을 가르치셨는데 놀라울 정도로 근검절약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바른길이 아니면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공직자로서 절제되고 청렴한 그의 처신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난 탓에 두 번 휴학하고서도 진주사범학교에 거뜬히 합격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가정교사로 벌었습니다. 당시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하면 졸업생 중 두 사람만 부산 초등학교에 부임할 수 있었는데, 그가 수석 졸업하면서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아대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야간대학 국문과에 등록했습니다. 초등학교 두 개 반의 담임을 맡아 매일 8시간씩 수업하면서도 학업을 이어 갔습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가난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법고시를 보기로 결심하고 법학과로 전과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숙식은 입주 과외로 해결하며 사법고시 준비에 매달린 지 2년 8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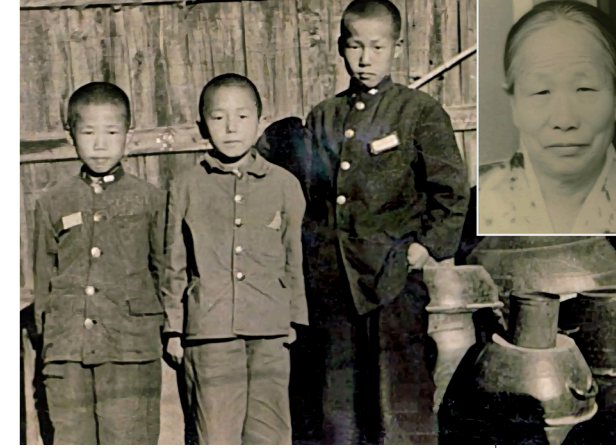


사진 맨 왼쪽이 조무제 전 대법관, 맨 오른쪽 둘째 형. 네모 안은 어머니

공정을 고민한 판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재임 시절



첫 부임지는 부산이었습니다. 그는 부산을 시작으로 마산, 통영, 대구, 진주 등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원칙에 어긋나면 타협하지 않았고 사소한 청탁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에서 근무할 때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교류를 끊다시피 하고, 친구나 친척조차 만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대화를 들던 부인 김연미 씨가 거들었습니다. "친척 소개로 만나 결혼을 약속했는데 어느날 저에게 대뜸 절대로 돈봉투나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청렴 서약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저녁이 되면 조무제 판사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걸려 오는 전화도 법원 동료와 사무처 직원, 절친한 법대 교수 세 사람을 제외하곤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부산 변호사 사이에는 "조무제에게 청탁하느니 돌부처에게 빌거나 예수에게 기도하는 게 낫다"는 농담이 퍼졌습니다.

1994년 창원으로 발령이 나자 직원들이 전별금 500만 원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그는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이 돈으로 법원도서관에 필요한 책을 사서 기증했습니다. 직원들은 그가 떠난 뒤에야 기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당시 전별금은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환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지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니 이 정도로 하시지요"하고 얼굴을 붉힙니다.

드디어 대법관이 되다

조무제 판사는 57세가 되던 해인 1998년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른바 비서울대 출신 지역판사의 대법관 임명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2004년 퇴임할 때까지 6년 동안 그가 주심을 맡은 사건만 해도 1만 4,000건이 넘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책임시절 수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장관급인 대법관에 임명됐지만 경기도 용인에 보증금 2,000만 원의 원룸을 얻어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다른 대법관은 모두 서울에 집이 있으니 사택이 필요 없었지요. 행정처에서 사택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만 특혜를 받을 수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는 국민 세금을 절대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며 비서뿐 아니라 전속 비서관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조무제 전 대법관

조무제 전 대법관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2002.11)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뇌물'이라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재산상속 판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신 딸에게 더 많은 재산상속권을 인정한 효도상속권 판결(1998.10)을 내렸습니다. 딸이 노부모를 모시고 오랜 시간 간병과 식사 수발을 했으므로 특별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30여 년간 판사로 재임하면서 그는 인권을 보호하고 뇌물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시 대학 강단으로

6년 동안 헌신한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그는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을 마다하고 모교 강단에 섰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법조계 관행을 뿌리쳤다라는 점에서 존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2~3년 안에 수십억 원의 수입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결단은 후배인 전수안 대법관과 김영란 대법관에게 이어져 퇴임 후 대형 로펌 대신 사회단체의 법률고문을 맡거나 대학으로 돌아가는 사법부의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인 김연미 씨는 "판사는 박봉인데다 남편이 여기저기 어려운 곳과 남을 돕느라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되면 살림이 훨씬 거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헛된 꿈이 되고 말았지요"하고 웃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 윤리'라는 과목을 맡아 4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윤리적 처신, 사회적인 책임을 강의했습니다.

정의로운 마음이 만든 희망의 길

그는 1993년 단행된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6,400만 원을 신고해 고위 법관 103명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 대법관 퇴임 때에도 전 재산은 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법원 조정위원으로 재직할 때는 수당이 너무 많다며 자진 삭감을 요청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판사 시절부터 더 가난한 대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고 동아대에도 2억 4,000만 원 이상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2007년 조무제 전 대법관은 이가 아파 먹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푸르메재단이 민간 최초의 장애인전문치과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100인 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이때부터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했고 연말이 되면 큰 기금을 보냈습니다. 조무제 기금에 다른 기부자들의 정성이 더해져 지난 15년간 5만 명의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았고 어린이재활병원을 짓는 데 큰 기둥이 됐습니다. 조무제 전 대법관의 강직한 성품과 청빈한 삶은 젊은 판사와 시민 사이에 존경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들에게도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에 존경할 스승과 어른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공직자의 청렴과 청빈한 삶에서 나눔을 실천한 조무제 전 대법관을 통해 큰 감동과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무너져 가는 요즘, 평생 법 앞에 만인의 평등과 공정한 판결을 추구했던 조무제 전 대법관의 가치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2004년 대법관 퇴임식



가치르



수확하는 공간



- 20 개월 2주년 맞은 푸르메소셜팜·무이숲
- 22 푸르메소셜팜 사회적 성과 측정 연구 중간평가
- 24 인터뷰 | 푸르메소셜팜·무이숲 직원 3인
- 26 대담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지속 가능한 발달장애인 일터를 향해



크게 성장한 푸르메소셜팜의 2024년

푸르메재단은 발달장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9월, 경기도 여주에 푸르메소셜팜을 건립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스마트팜 기반 발달장애인 일터로, 정식 개원 후 2년이 지난 지금 총 55명의 발달장애 청년이 정직원으로 근무합니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터, 성장으로 답하다

푸르메소셜팜은 2024년 31억 원의 매출을 달성, 2023년 23억 원 대비 34% 향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선진 농가의 컨설팅과 재배관리사의 역량강화 교육, 농작물 재배관리시스템 개선 등 노력으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한 덕분입니다. 2023년보다 토마토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포장시설을 기존 하루 5,000개에서 7,000개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위생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직무능력이 크게 향상했습니다.

체험·견학·대관 사업 확대로 매출 2배 성장, 발달장애인 직업 교육 지원 강화

체험·견학·대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23년 7,160만 원의 2배 가 넘는 1억 4,600만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한 해 동안 3,876명(체험 1,093명, 견학 2,783명)이 푸르메소셜팜을 찾았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과 부모(보호자), 교사들이 방문해 직무 경험을 쌓거나 취업 정보를 얻는 시간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 발판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특수 직업교육 공유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카페 '무이숲'에도 17만 6,584명의 시민이 다녀가며 지역사회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정직원 발달장애 청년

55명



2024년 매출

31억 원

2023년 대비 34% 향상

체험·견학·대관 매출

1억 4,600만 원

2023년 대비 2배 성장



푸르메소셜팜 총 방문객

3,876명

체험 1,093명/견학 2,783명

무이숲 총 방문객

176,584명

푸르메소셜팜
직원 이수연



자기계발 프로그램 확대, 생활체육·자격취득·대회 수상 성과 달성

발달장애 직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 기관(여주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자립센터, 여주시 미술관)과 연계하여 미술, 요가, 탁구, 정리수납자격과정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탁구 종목 혼합복식 금메달(조은정 직원)을 차지했고, 정리수납자격과정에서는 참여자 16명 전원이 2급 정리수납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여주시가 개최한 장애인 요리대회에서 대상(이수연 직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취업해 당당하게 일하며 살아갈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터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푸르메소셜팜이 좋은 일자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푸르메소셜팜&무이숲 사회적 성과 측정연구 중간평가

"근무시간을 늘려 더 많이 일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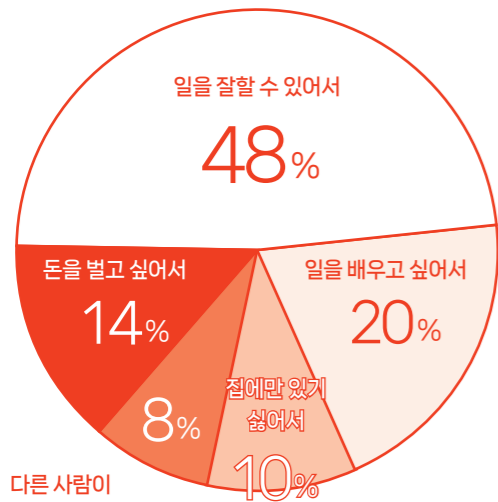
푸르메소셜팜의 초기 목표는 발달장애 청년을 최대 60명까지 채용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얼마나 이루어 가고 있을까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푸르메재단은 2023년부터 한양대 임팩트리서치랩과 함께 사회적 성과 측정에 나섰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3년부터 총 3년. 최종 결과는 2025년에 나오지만, 임팩트리서치랩은 1년간의 조사를 통한 중간평가 결과를 우선 공개했습니다.

+ 높은 업무 만족도, '더 일하고 싶다'는 의지로 이어져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을 직장으로 선택한 이유로 직원 3명 중 1명은 '업무가 내 수준에 맞아서(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어서)'를 꼽았습니다. 직원들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하루 4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길게 일하고 싶다고 답한 직원의 비율이 43%나 됐습니다. 발달장애인 전체 취업자 평균(16.6%)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비교 자료: 2022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 직원들이 일하기로 결심한 이유



왼쪽의 표는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 직원들이 일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을 잘할 수 있어서'(48%)라는 답변이 압도적인 1위로 꼽혔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버는 건 고작 3순위임에도 43%의 직원이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답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여러 답변을 통해 그 까닭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 직원의 75%는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답했으며, 일하는 데 육체적·기술적 어려움이 있는냐는 질문에 각각 88.5%와 96.1%가 '적당하다, 힘들지 않다, 전혀 힘들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업무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1점(발달장애인 전체 취업자 평균: 3.65점),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4.4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푸르메소셜팜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직원이 94.2%에 달합니다. 직원 개인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고 충분히 숙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무환경이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더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발달장애 직원에게 나타난 긍정적 변화는?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은 장애 직원이 다수(장애 직원 55명, 비장애직원 17명)를 차지하는 만큼, 직장 내에 장애 직원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장애 직원 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하고 서로 업무 경험을 공유하며 학습하기에 사회성과 직무능력이 크게 향상했습니다. 또한 비장애 직원과 근로지원인이 함께 일하며 관계를 확장하고,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일과 후 진행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동료 간의 친밀도를 높였고 커뮤니티 형성에 영향을 줬습니다.

개인별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비장애 직원과 보호자들은 장애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 소근육 발달과 체력 향상 등 신체기능이 향상하고, 대인관계, 경제관념, 사회성 등도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장애 직원 스스로는 자립성이 발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에 큰 만족감을 보였고, 일하는 것에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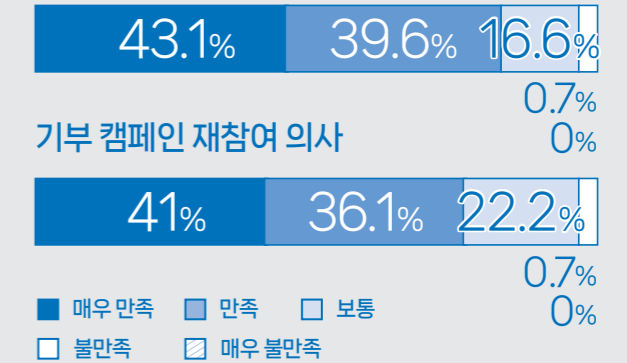
조사 결과에서 보듯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은 발달장애인 일자리로서 많은 이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 청년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도록 돕는 좋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기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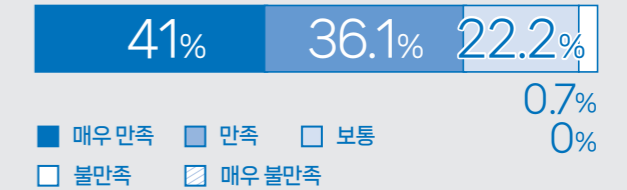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 건립에는 기업·기관 외에 2천여 명의 개인 기부자가 참여했습니다. 기부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88% 이상의 기부자가 장애인복지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어 기부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0.1%가 '푸르메재단에 대한 신뢰'를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부 후에 이들은 기대만큼 만족했을까요?

푸르메소셜팜의 진정한 가치

기부 만족도



기부 캠페인 재참여 의사



약 83%의 기부자가 푸르메소셜팜 기부에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77%의 기부자는 이 같은 캠페인이 있다면 다시 참여하겠다고 답했지요. 주변 사람에게 푸르메소셜팜 기부를 추천하고 싶다고 한 비율도 72.2%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72.3%가 기부 후 장애인 관련 사회적 이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장애인 자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문화 순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의 가치는 단순히 발달장애 청년 55명의 일자리를 만든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지,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지, 장애인에게 자립은 어떤 의미인지 등을 고민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 가치를 키워 준 건 누군가를 돕고자 자신의 것을 나누는 기부자들입니다. 푸르메에 보내 준 신뢰, 푸르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기꺼이 나누기로 결심한 고귀한 마음들을 무거운 책임으로 지켜 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자유롭게 살래요.”



푸르메소셜팜·무이숲 최도정·원유림·장정규 직원 이야기

경기도 여주의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은 발달장애 직원들의 자부심이자 여주 인근에 거주하는 장애 청년들의 꿈의 직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미래를 일구고 있는 최도정·원유림·장정규 직원에게 일과 삶,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도정 직원은 두 명뿐인 푸르메소셜팜의 40대 장애직원 중 한 명이자, '발달장애인은 운전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준 차차 출퇴근자입니다. 2013년에 부모님께 차를 선물 받아 끌고 다닌 것이 벌써 12년째입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직접 운전해 출근합니다.

도정 씨는 학교 졸업 후 20년 가까이 부모님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와 소통하거나 자립을 고민할 기회가 부족했지요. 하지만 도정 씨에게 그 생활이 나쁘지 않은 않았답니다. **최도정 직원** “학교 다니는 내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어요. 학창 시절 즐거웠던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의 상처로 도정 씨는 누군가와 어울려 일하는 것을 오랫동안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온라인에서 여주에 푸르메소셜팜이 생긴다는 소식을 접하고,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도정 직원** “마침 제가 사는 여주에 생겼고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힘으로 돈을 벌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도정씨는 출퇴근길이 너무 즐겁습니다. 점점 일을 잘하게 되니 자부심과 자신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나머지는 동료와 가족들을 위해 쓴다고 말하는 도정 씨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최도정 직원** “동료들 커피도 사 주고, 가족 외식할 때 돈을 써요. 부모님이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좋다’고 말할 때 제일 기뻐요.” 도정 씨의 소원은 푸르메소셜팜이 지금보다 더 잘되는 것입니다. **최도정 직원** “농장이 잘돼야 저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푸르메소셜팜 재배팀 최도정 직원

바른 살
신입사원



무이숲 베이커리부 원유림 직원

원유림 씨는 자타공인 무이숲 베이커리부의 에이스입니다. 일도 빠르게 배우고 손도 빠릅니다.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4시간 동안 10여 종의 빵을 만듭니다. **원유림 직원** “제일 먼저 샌드위치부터 만들어요. 그 후 소금빵, 커피번, 토마토 포카치아 등을 만들고, 틈틈이 피자빵 만드는 동료들 일을 도와줘요.”

물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가득 채워진 통을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의 카페로 올리는 일입니다. 이 통이 꽤 무겁거든요. 반전은 이 일이 원래 유림 씨 업무가 아니라는 것. **원유림 직원** “카페부에서 일하는 다희 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무겁잖아요.”

하지만 착하고 예쁜 모습 뒤에 조금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한 번은 베이커리부 총괄 부장이 휴가를 간 사이, 유림 씨가 조금 느슨해진 업무 분위기를 바짝 잡았습니다. **원유림 직원** “부장님이 없으면 제가 동료들한테 잔소리해요. 일 똑바로 하라고요.” 3년 차 선배 직장인다운 모습입니다. 유림 씨의 월급 대부분은 적금을 붓고 얼마 안 되는 용돈은 거의 가족, 특히 조카들의 선물로 나갑니다. **원유림 직원** “엄마 생신 때 꽃다발을 사드렸더니 고맙다며 우시더라고요.”



유림 씨에게 자립은 '오랜 꿈'입니다. **원유림 직원** “집이랑 차를 사서 독립하고 싶어요. 조카들이 매일 집에 오는 게 좋기도 한데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유림 씨는 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원유림 직원** “손님이 많아져서 무이숲이 더 잘됐으면 좋겠어요. 서른 살 넘어서까지 오래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무이숲 카페부 장정규 직원

2021년 푸르메소셜팜에 입사한 장정규 직원은 2022년 무이숲이 문을 열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푸르메와 3년을 함께한 소중한 직원이지요.

장정규 직원 “가장 즐거울 때는 퇴근하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셔틀 차량이 출발하기 전까지의 시간이에요. 동료들이 다 모여서 대화하며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즐거워요.”

카페부에서 일하는 정규 씨의 업무는 다양합니다. 음료를 만들고, 손님들이 반납한 쟁반 정리와 테이블 닦기, 설거지도 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음료는 '사과당근주스'랍니다. 물론 무이숲 시그니처인 '토마토주스'도 능숙하게 만들고요.

정규 씨는 월급을 직접 관리합니다.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용돈으로 쓰는데, 종종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도 합니다. **장정규 직원** “돈을 번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좋아요. 모아서 집이나 차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정규 씨에게 자립은 '자유'입니다. **장정규 직원** “혼자 살고 싶어요. 더 자유롭게 놀고 싶고, 연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어요.”

내 집 마련으로 독립을 꿈꿔요
제 힘으로 돈 버는 게 즐거워요





발달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려면?

몇 해 전부터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탈시설 정책과 함께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최근의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까지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정책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은 하나입니다. 장애인이 자립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푸르메재단에서도 관심이 깊은 내용이지요.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려면 어떤 지원과 인프라가 필요할까요? 전문가 4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참석자

백은령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푸르메재단 이사)

정병은 작은물결연구소 대표
(발달장애 자녀의 자립을 준비 중인 부모)

김은영 종로장애인복지관장

최현주 푸르메재단 경영기획실장

“발달장애인의 보통의 삶,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가능”

최현주(이하 최)

푸르메재단은 어린이들이 재활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지었고, 발달장애 청년들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터(푸르메 소셜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삶’이란 게 치료와 직업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떤 지원과 인프라가 필요한지 들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푸르메재단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백은령(이하 백)

성인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 당연하게도 아이 때부터 잘 자라는 게 중요해요. 일찍부터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아동과 부모가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부모가 치료에만 몰두하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김은영(이하 김)

제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0년간 일하며 생각해 온 것과 똑같아요. 처음 자녀가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알려 주고, 복지관에서 자녀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종로장애인복지관은 아래층의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부모·보호자들이 있으니, 이들과 함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나 ‘평생설계’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백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만나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장애)자녀를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결국 아이랑 나 둘만 남았다’고 해요. 배우자나 비장애 자녀, 다른 가족들과는 소원해졌다는 얘기도. 이렇게 되기 전에, 가족의 삶을 전체적으로 멀리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예컨대 비장애 형제의 입장에서 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애(장애 형제)는 엄마 아빠가 책임질 테니, 너는 걱정 말고 네 길을 가도 된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인데 영원히 모른 척 사는 게 가능할까요? 부모님마저 돌아가시면 장애 형제가 남아요. 어떻게 돌봐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즘 가족 지원을 할 때 장애당사자를 빼고 다른 가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당사자를 포함하여 앞으로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지원이 필요해요. 부모의 생각도 바뀌어야겠죠. 어릴 때 종일 치료와 교육만 받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평생 치료나 교육 받는 대상일 수는 없어요. 아이도 언젠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니, 멀리 보고 미래를 대비하면 좋겠어요.



정병은(이하 정)

부모 입장에서 말하면, 발달장애는 어릴 때 진단받잖아요. ‘(정상 발달보다)1년 6개월 늦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단을 듣자마자, ‘그 격차를 메워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내가 한 3~5년 열심히 치료·교육 받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치료·교육을 안 받게 하면 제가 엄마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교육을 받지 않을 때마다 ‘혹시나 이 치료(교육)로 아이가 나아질 수도 있는데, 내가 못해 줘서 잘못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에 무척 힘들었죠. 아이의 발달장애가 제 탓이 아님을 아는데도 그랬으니, 다른 부모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김 그럴 때 부모에게 전문가가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각 지역의 복지관에서 오래 경험을 쌓은 가장 노련한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백 그런 점에서 푸르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병원과 복지관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부모들은 믿을 만한 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원하거든요. 발달장애 아이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푸르메재단의 자원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진단과 진료, 상담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해요. 발달장애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부모에게 가이드를 주는 역할이요. 이런 가이드가 없기에 부모가 불필요한 치료·교육 비용과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니까요.

"부모가 자립한 자녀 모습 상상해 볼 기회 필요"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의 하나는 정보 창구의 부재(不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정책이 생기고 바뀌지만, 그것이 장애당사자나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주민센터에 찾아가 물어도 복지 담당 공무원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엄마들끼리 알음알음 정보를 공유하며 찾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경은 대표

정 호주의 경우, 복지 정보가 모두 모인 '센터링크(Centrelink)'가 있어요. 제가 센터링크를 보고 가장 감탄한 부분이 이용자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혹시 지금 실직했나요?',

'혹시 장애가 있나요', '혹시 가족 중에 돌봐야 할 사람이 있나요?'... 이런 내용을 꼭 물어보고 이용자가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딱 떠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서비스(복지로)가 있는데, 거기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요?'를 묻거든요.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센터링크는 이용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를 묻고, 그 상황에서는 무엇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용하라고 알려 주는 거예요.

최 정 대표님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고 자립 준비를 시키고 계시잖아요. 발달장애인이 잘 자립하려면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 '자립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부모들이 답하기는 아주 힘들어요. 대부분 부모는 발달장애 자녀가 독립할 미래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성인이 된 자녀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직장에서 일하며, 어떤 이웃과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까'에 대한 구체적인 상(像)이 없어요. 그러니 '자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자녀의 자립을 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립한 자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백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재활 패러다임(Rehabilitation Paradigm)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Independent Paradigm)으로 바뀌었는데, 그동안 보호와 치료, 재활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부모와 장애당사자에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하니 당황스러운 거지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장애인의 '자기 결정', '선택' 등의 개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부모·보호자와 장애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게 중요하죠.

최 장애인의 자립에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큼니다. 포용적인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바뀌어야 하는 부분, 지역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백 각 복지관이 해당 지역의 장애인만 확실하게 책임지면 돼요. 예컨대 종로장애인복지관이면, 종로구에



최현주 실장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한 명 한 명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삶 전체를 놓고 보면서 시기별로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서 지역사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거죠.

김 최근 복지관을 찾아온 분은 자녀를 독립시키기 위해 여러 공동주택을 알아봤는데,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 종로의 단독주택에서만 살았기에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사실 발달장애인은 오래 거주한 낯익은 환경에서 사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 부모와 함께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공동체와 발달장애 당사자를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도 해야 하고요.

백 일본 '베델의 집'이 장애인 자립의 좋은 사례예요. 훗카이도 우라카와 마을에 있는 정신장애인 시설인데, 정신장애 사례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에 대한 함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모델이지요. 과거 지역병원에서 일하던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 장애당사자 세 명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기관으로, 장애당사자들이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서 살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룹홈에 살기도 하는데 아침마다 모여서 지역특산물인 다시마를 잘라서 포장하는 일을 해요. 베델의 집이 유명해지다 보니 이곳을 보러 일본 전역과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덩달아 지역 호텔이 호황을 누리게 되었어요. 베델의 집이 장애당사자 연구를 해서 매년 학술대회를 여는데, 지역 호텔에서 장소를 무료로 빌려줄 정도로요. 또 베델의 집 사람들이 호텔에 취업하기도 하고요. 장애인 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 윈윈(win-win)하는 좋은 사례이지요.

정 아이를 키우면서 지원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예를 들어 가족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복지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위치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가서 문의하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고 끝인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우리 센터에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어느 센터에 가면 받을 수 있다'거나 '그 서비스는 없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이런 지원을 제공하니 살펴봐라' 같은

안내거든요. 센터마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통합형·맞춤형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에요.

백 국내법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상태예요. 호주의 '센터링크'처럼 정말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돼야 하죠.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을 영유아기부터 밀착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김 복지관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내용이 이 이야기와 연결돼요. 복지관이 프로그램만 이용하러 찾는 곳이 아니라 부모, 장애당사자가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와 정책을 이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찾아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그것이 적재적소에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복지관이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어릴 때부터 밀착하여 지원하면서 시기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좋겠지요.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푸르메재단 및 산하 복지관, 기관들과 협력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관장

우리의 삶은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회로 나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립하여 자기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푸르메재단이 어린이의 재활치료부터 일자리, 지역사회 복지까지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사업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푸르메재단은 앞으로도 15개 산하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습니다.

함께 이룬 성장!



- 31 장애가족지원 사업
- 36 미국에서 날아온 응원의 메시지 | 이정후 선수
- 38 이용자 중심 맞춤형 재활환경 구축
- 40 줄리안-우리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방문기
- 42 생애주기 따른 지역사회 복지사업 강화
- 44 푸르메와 사람들 | 객재복 관장
- 46 장애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IoT
- 47 그 외 주목할 만한 성과
- 48 푸르메와 함께 자랐다 | 김윤지 선수

장애가족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에 필요한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등 지원을 계속하면서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누구나벤치 보급'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습니다.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총 대상 인원
1,405명

총 사업비
2,007,766,694원

사회적응·자립 지원

처음으로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을 시행하여 총 5팀의 장애인(예비)창업가를 선발했습니다. 창업지원금과 창업 멘토 컨설팅을 제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도록 도왔습니다.



1)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제공

사업비 35,000,000원

지원자 5팀

2)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체기능의 회복·증진을 위해 맞춤형 이동 및 자세유지 기기 지원

사업비 741,208,000원

지원자 324명

3) 정형신발 지원사업

어린이의 보행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신발 및 깔창 지원

사업비 5,003,000원

지원자 12명



Case 1

장애인 IT 창업아이템 공모전에서 선발된 '잡빌리티' 팀은 창업지원금과 창업 멘토 컨설팅을 제공받아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장애인 맞춤형 채용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오픈하였습니다. 지자체 및 기업 등과 계약을 맺어 현재 국내에서 7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베트남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Case 2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현우 (가명·11) 군은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 없고, 자리에 앉거나 설 수도 없습니다. 성장기가 되면서 기존에 쓰던 휠체어가 몸에 맞지 않은 데다 거주지역 보행로의 경사가 심해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푸르메재단을 통해 전동휠체어를 새로 지원받으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자, 현우는 학교 등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재활

장애어린이가 신체기능을 향상하고 인지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와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적기에 알맞은 의료적 개입과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1)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여·비급여의 다양한 재활치료 지원

사업비 171,804,802원

지원자 89명

2) 의료비 지원사업

수술비, 주사비, 검사비 등 의료비 지원

사업비 15,682,152원

지원자 7명

3) 희귀난치질환 지원사업

의료비, 약제비, 치료·보조기구 등 지원

사업비 206,947,810원

지원자 68명

4) 치과치료 지원사업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비 288,733,150원

지원자 105명



교육·문화·여가 지원

장애인 일상변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누구나벤치'를 서울 여의도공원, 홍대 레드로드 등에 설치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일상이 잘 유지되도록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비, 심리치료비, 가족여행 등을 지원했습니다.



1)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예체능 분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사업비 47,560,000원

지원자 30명

2) 장애가족 교육비 지원사업

장애어린이 및 비장애 형제·자매 등에 교육비 지원

사업비 117,815,796원

지원자 90명

3) 장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비 지원

사업비 40,528,000원

지원자 31명

4) 가족여행 지원사업

여행·나들이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비 122,392,900원

지원자 185명

5) 문화공연 지원사업

장애인 가족 및 복지분야 종사자 대상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 114,403,758원

지원자 309명

6) 장애가정 물품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의 교육 및 취미활동에 필요한 물품 제공

사업비 20,596,328원

지원자 119명



Case 1

박세진(가명) 어린이는 뇌성마비, 신생아대뇌백질연화로 인한 중증의 뇌병변 장애입니다. 2024년 척추변형, 내족지 보행, 슬관절 구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 작용 방향이 달라져 지속적인 다리 근력 강화 및 보행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푸르메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은 덕분에 로봇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다리 힘이 좋아졌습니다. 보행 자세도 좋아져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ase 2

생후 100일 무렵 머리를 크게 다친 윤아(12)는 왼쪽 편마비, 발달지연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 전 아킬레스건 수술 후 기립기를 이용해 재활해야 했지만, 가정형편상 기립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간 재활을 중단했던 윤아는 푸르메재단의 지원으로 기립기를 마련했습니다. 매일 40분씩 기립기에서 재활하면서 윤아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자세도 좋아져 넘어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Case 1

고등학교 1학년인 김세아(가명) 양은 어려운 환경에도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득이 적은 데다 장애형제의 재활치료 등으로 세아의 교육비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세아는 푸르메재단의 장애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에 연속대상자로 선정되어 2년 동안 비용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족했던 수학 성적이 많이 향상되며 학업 의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Case 2

이선희(가명) 씨는 중증의 뇌병변장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4년간 아이의 재활치료에 매달리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홀로 평생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힘들고 우울했습니다. 그때 푸르메재단의 장애가족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녀와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일상 변화 프로젝트

모두를 위한, 누구나 벤치



총 사업비

80,091,000원

설치 장소

23개소(26개)



장애인 일상 변화 프로젝트의 출발점인 누구나 벤치. 앞으로도 푸르메재단은 기업, 기관과 손을 잡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이 일상의 틈을 한 발씩 줄여 모두가 차별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공원에 첫 번째 '누구나 벤치'가 설치됐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벤치입니다. 여의도 공원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홍대 레드로드 등 23곳에 총 26개의 누구나벤치가 설치됐습니다.

'누구나 벤치' 사업이 시작된 건 2022년 12월입니다. 현대제철이 임직원 매칭 기부로 조성한 기금(1억 8천만원)의 사용처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대제철은 기금을 전달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장애인 일상 변화 프로젝트'로 유익하게 써달라"는 바람을 함께 전했기에 재단 내부에서는 사용처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현대제철의 철 소재를 활용한, 유니버설(배리어프리) 제작물을 만들어 보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벤치, 그네, 이동 경사로 등 다양한 아이템이 거론됐습니다. 현대제철 임직원의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누구나벤치' 제작이 결정되었지요.

이 기획을 멋지게 실현해 준 이는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가)입니다. 벤치 디자인은 물론 감리까지 맡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지요.

유현준 교수는 "벤치를 이용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자리에 휠체어가 없더라도 모두가 다 같이 사는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건 현대제철 본부장은 "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소재"라며 "철을 활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는 "'누구나벤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현대제철 임직원과 유현준 교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모든 서울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사업이 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성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받은 만큼 베푸는 아이 되길...

서연이 가족 이야기

수차례 시험관 시술 실패 후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처럼 찾아온 서연이(가명). 예정일을 딱 채워 태어난 아이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남들처럼 행복한 일상을 꿈꾸던 그 순간, 서연이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뇨기계가 기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장루수술부터 꼬리뼈 무형성,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유문 협착, 지방 척수 수막류 등 듣도 보도 못한 5번의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200일 만에 알게 된 문제의 원인은 '7번 염색체 미세결손으로 인한 큐라리노 증후군', 극히귀질환이었습니다.

엄마 민정 씨(가명)는 직장을 휴직하고 아침 일찍 서연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 오후 3시까지 집중재활 치료를 받고, 저녁에는 사설센터에서 재활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그 생활을 3년간 지속하자 저축한 돈은 바닥나고 마이너스 통장과 빚만 남았습니다.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될 때 식당을 개업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남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작년(2023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치료를 줄여도 빚은 계속 늘고, 서연이에게만 매달리다 보니 저도 우울증이 생겼고요."



가장 간절할 때 찾아온 도움의 손길

회사 복직은 코앞인데,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서연이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비로 돌봄 인력을 구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복직을 포기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 상태였지요. 그때 찾아온 도움의 손길이 엄마에게 큰 희망이 됐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푸르메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휴직했어도 맞벌이라는 이유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었거든요. 간절할 시기에 받은 지원이라 더 기쁘고 감사했어요."

덕분에 서연이는 올 한 해 치료비 부담 없이 꼭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처럼 발달지연이 있는 아이들은 이 시기부터 인지과 언어재활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 치료들은 비급여라 비용 부담이 컸는데 치료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됐어요."

지난해부터 한두 걸음씩 걷기 시작한 서연이는 올해 5월부터 독립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의사표현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그만큼 엄마 아빠의 희망도 커졌습니다. "가장 간절할 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큰 힘이 됐어요. 서연이가 지금처럼 잘 성장해서,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고 베푸는 아이가 되었으면 해요."

미국에서 날아온 응원의 메시지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소속된 이정후 선수가 2024년에도 장애어린이를 위한 나눔을 이어 갔습니다. 5월 어린이날을 맞아 1천만 원, 12월 연말을 맞아 1천만 원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했습니다. 2019년부터 벌써 6년째 이어진 선행입니다.

어린이날마다 장애어린이를 위해 1,000만 원씩 기부해 온 이정후 선수는 2020년부터 아버지인 이종범 kt wiz 코치와 함께 푸르메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KBO MVP 상금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푸르메재단 고액기부자모임인 '더미라클스' 회원으로도 이름을 올렸지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총 1억 5백만 원입니다.

안타까운 부상으로 재활하는 중에도 장애어린이를 잊지 않고 기부를 이어 간 이정후 선수. 그는 "장애어린이들이 힘든 재활치료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메이저리그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수많은 야구팬과 장애어린이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습니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한 이정후 선수



2024 푸르메 산하기관 성과





2024 푸르메 산하기관 성과 ①

이용자 중심 맞춤형 재활환경 구축

국내 어린이재활병원 최대 규모의 로봇재활치료센터 개소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분야별 특화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존 공간을 재정비했습니다. 특히 치과가 있던 3층 공간이 푸르메 로봇 재활치료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도입한 보행(하지)재활로봇 로코멧 프로 1대와 엔젤렉스M20 1대에 더해 모닝워크S200P와 밤비니 틴즈를 각각 1대씩 추가 도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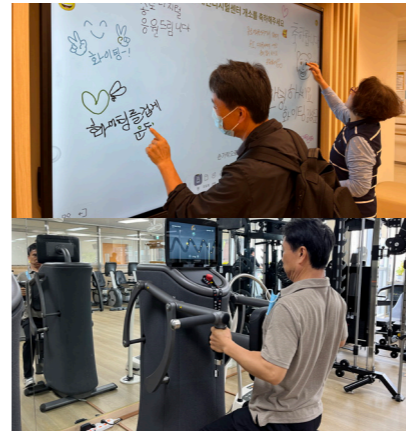
이와 함께 보행 동작을 면밀하게 분석해 개인 맞춤형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실시간 3차원 동작분석 시스템과 스마트 인솔, 상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상지재활로봇 4대 등을 구비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어린이재활병원 최대 규모의 소아재활 로봇치료센터 면모를 갖췄습니다.

이용자 한마디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지 못하던 아이가 2024년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밤비니 틴즈 로봇치료를 받으며 처음으로 바르게 서서 걸었습니다. 아이에게 잘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로 장애인디지털센터 조성



종로장애인복지관은 종로구청과 협력하여 '종로 장애인디지털센터'를 열었습니다. 종로 장애인디지털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체험,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모바일 체험존, 스마트 건강증진실, 스마트 활동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용자 비만도 개선과 재활치료를 위한 디지털 기기에서부터 언어와 작업치료, 놀이를 위한 기기까지 다채롭게 배치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건강증진실은 IT 기기로 개인별 자세와 체력을 상세하게 측정하고, 운동 후 개선율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한마디

“장애인디지털센터에서 VR기기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용자 모두가 즐겁게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을 키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치료실 및 대기실 환경 개선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는 장애어린이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 받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재활치료실과 대기실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진 아동 친화적인 공간 덕분에 아이들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는 재활치료비와 부모 상담비 등을 지원, 경제적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용자 한마디

“어린이를 위해 잘 조성된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아 아이가 비급여인 그룹치료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치료를 통해 규칙을 지키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 사회성이 좋아졌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 줄리안-우리스,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방문기



2024년 5월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이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 사랑스러운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과 그의 조카 우리스입니다. 2020년 MBC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삼촌 줄리안과 함께 출연해 큰 사랑을 받은 우리스. 당시 줄리안은 우리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어하는 팬들에게 "선물 대신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우리스의 생일에 푸르메재단의 미라클데이 캠페인에 참여했지요.

많은 분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기쁨

줄리안과 푸르메의 만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푸르메재단 홍보대사인 가수 션을 통해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모금에 참여했고, 그 후에는 자선라이딩 행사를 기획해 병원 운영비를 모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연이 우리스의 '미라클데이 캠페인' 기부로 이어졌지요. 줄리안은 우리스에게 그의 이름으로 기부한 기금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길에 우리스의 엄마와 할머니가 동행했지요.

방송 후 4년 만에 본 우리스는 훌쩍 컸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던 당시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지요. 우리스 "그때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병원을 돌아보기 시작하자 낯선 공간과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한 듯 엄마와 삼촌 곁에 꼭 붙어 있었지만, 치료받는 아이들을 봤을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했습니다. 가장 오래 머문 곳은 로봇치료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놓여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이리저리 관찰하더니 그 앞에 살포시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스 "로봇으로 치료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우리스는 생일에 선물을 받는 대신 기부한 것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며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스 "치료받는 친구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치료를 잘 받아서 다들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로 오래 일했다는 줄리안의 어머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얼마 동안 치료받는지, 이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제도가 있는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병원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을 말이죠.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선물 대신 기부하는 문화 널리 퍼지길

이날 가장 바쁜 이는 줄리안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때때로 질문하고, 프랑스어로 통역하면서 가족들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돌아보면서 연달아 감탄사를 내뿜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병원이 탄생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선물 대신 기부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싶다는 줄리안. 그는 병원 방문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장애어린이를 위한 '미라클데이'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이 나눔에 동참해 주었지요. 줄리안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받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기부로 인해 받는 기쁨은 오래 지속돼요. 나눔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2024 푸르메 산하기관 성과 ②

생애주기 따른 지역사회 복지사업 강화



중장년발달장애인 노년기전환지원사업은 중장년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옹호인과의 1:1 매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커뮤니티 활동, 전문가와의 상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명의 중장년기 발달장애인이 시민옹호인과의 개별활동(35회),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활동(21회) 등에 참여하며 이웃관계를 증진했습니다. 또한 건강·경제·주거 분야의 전문가 상담(12회)을 통해 노년기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용자 한마디 “언니(시민옹호인)와 차 마시고 산책하고 장을 보는 등 많은 활동을 함께해서 좋았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때가 많은데 여러 사람이 집에 찾아오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아서 즐거웠습니다.”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4년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람중심 실천 접근의 상담을 통해 당사자가 원하는 삶을 확인, 그에 따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뒤 예산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자원을 발굴해 연계했습니다. 그 결과 장애당사자 14명을 위한 서비스(총 20,669,460원)를 승인받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삶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활동 기회를 통한 삶의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용자 한마디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해 깊이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건강약자를 위한 건강동행사업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에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건강약자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약자를 위한 건강동행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약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체력·신체측정과 운동컨설팅, 체계적인 운동 관리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6~7개월간의 운동을 통해 평균 2~3kg의 체중과 1~2kg의 체지방을 감량했습니다. 또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도 1~2등급씩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용자 한마디 “어떤 운동이든 스스로 하는 것은 어려운데 여기는 모든 운동을 선생님이 일일이 체크 하시면서 알려주시니까 정말 좋아요. 스스로 운동이라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선생님의 지시하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지만 그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건강증진교실에서 운동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장애인과 함께한 40년 외길, 곽재복 관장을 만나다

1985년 5월, 경제학과를 갓 졸업한 스물여섯 살 청년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서울장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88올림픽도 아직 열리지 않았던 시절, 모두가 경제발전에만 목매던 당시에는 '장애', '사회복지'란 단어도 생소했습니다. 서울장복은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그때 고작 개관 3년 차였지요.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게 내디딘 첫발이 40년간 이어지리라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2024년 12월 퇴임한 곽재복 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가 만났습니다.

불모지였던 장애인복지 분야, 주춧돌부터 쌓아올리다

곽재복 관장 "대학 졸업할 무렵 제가 속한 가톨릭학생회에서 성서를 지도해 주시던 수녀님께서 '상경계열 출신을 찾는 복지관이 있다'고 추천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기도 했던 터라, 복지관에서 기획·홍보 일을 맡게 됐습니다."

입사하자마자 곽 관장은 막막했습니다. 장애인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고 해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곽재복 관장** "장애인 무료 순회 진료를 받기 위해 37년 만에 처음 집 밖에 나와본 장애인이 있을 정도였어요. 방승사에서 장애인 관련 내용이 TV에 나오면 시청자가 불편해 한다며 꺼렸고요.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지요."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있으면 무작정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 홍보를 부탁했습니다.

서울장복이 발간하는 잡지 '성지'(현재는 '보통의 하루')에는 장애 인식 개선 콘텐츠를 꾸준히 내보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기에 집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재활, 지도 방법을 알렸습니다. 곽 관장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은 장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직접 목소리를 낼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장복은 1982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재활치료 서비스와 커뮤니티 센터를 결합한 모델로,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 형태이지요. 전봉운 초대 기획실장 등이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서울장복은 이후 생겨난 260여 곳 장애인복지관의 지원과 자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곽재복 관장 "외국의 선진 기법을 배워서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그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복지관과 공유해 왔습니다.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를 위한 100여 종의 교재를 펴냈지요."

곽재복
관장



백경학
상임대표



장애인 위하는 한뜻으로 25년을 이어온 푸르메와의 인연

서울장복과 곽재복 관장, 푸르메재단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1999년 백경학 상임대표와 부인 황혜경 씨는 유럽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재활치료를 이어갈 방법을 찾다가 우리나라의 열악한 재활환경을 알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병원 건립을 위해 재단 설립을 준비하던 중 우리나라에서 재활치료 잘하기로 소문난 기관을 찾았는데, 그중 한곳이 서울장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복지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백 대표를 맞이한 이가 바로 곽 관장이었다고 합니다. 백 대표는 "약속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간 저를 데리고 한 시간 넘게 복지관을 안내해 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2011년 곽 관장은 푸르메재단이 운영하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했고, 2018년 푸르메재단이 서울장복을 수탁하자 이곳으로 돌아와 6대 관장을 맡았습니다. 취임 후 그는 사람 중심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친 말)의 세 가지 전략을 설정,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데 일조했습니다. 국제협력에도 힘을 기울여 해외에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모델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서울장복을 모델로 한 베트남 팡찌성 장애인종합재활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보통의 삶' 위해 필요한 우리의 노력은

백경학 상임대표는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곽 관장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장애인복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출생에 의한 인구 감소 ▲고령화 ▲1인 가구 ▲기후 위기 등입니다. **곽재복 관장** "인구 감소에 따라 양적 서비스에서 질적 서비스, 즉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1인 가구인 고령의 장애인이 늘고 있어요. 이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탈시설'은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가장 깊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백 대표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탈시설'은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곽 관장도 이에 공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탈시설을 시도한 일본에서도 시설을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교류 없이 고립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곽 관장은 "단순히 사는 장소의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이 제일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재복 관장 "탈시설"은 이용자가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시설에서 거주하더라도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죠. 두 가지 방향으로 모두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장애인과 함께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행운이었다"고 퇴임 소감을 밝힌 곽재복 관장. 현직에서는 물러나지만, 푸르메재단의 이사로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인생 2막을 향해 새로운 출발선에 선 그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장애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IoT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 구축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사물인터넷(IoT)과 보조공학, AI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스마트홈 전시체험실을 조성했습니다. 이 체험실은 IoT를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편의 환경을 구현하고 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더욱 독립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99명의 이용자가 방문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스마트홈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첨단 기술 적용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는 매년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12명에게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장애당사자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대체 마우스와 키보드 등의 최첨단 IT보조기기를 지원해 컴퓨터,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도움으로써 학업과 진학, 취업을 통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한마디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로 손으로 물건을 잡거나 버튼을 누르는 게 어렵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안구마우스 사용을 권했지만 가정 형편상 고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IT보조기기 지원사업에 선정돼 안구마우스를 지원받은 덕분에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 외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업에 대한 흥미와 열정으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 주목할 만한 성과



종로아이존

통합환경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환경지킴이'

종로아이존은 2024년 장애·비장애 어린이 통합환경교육 프로그램 '우리는 환경지킴이'를 진행했습니다. 환경 동화책을 활용해 기후변화 바로 알기, 지구와 내 몸을 위한 먹거리 알아보기, 분리수거,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 같은 다양한 연계활동을 했습니다.



책을 통해 세상과 만나는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AI 디지털 코딩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은 AI 소프트웨어 체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종이기가 아닌 디지털 교구를 활용하여 노래와 책 등의 창작물을 만들면서 디지털 소양과 윤리의식을 함께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포푸르메 직업재활센터
MAPO PURM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발달장애 청년 디자인 상품 해피빈 펀딩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는 시그니처 캐릭터인 강아지 '아토'가 들어간 PVC 소재 가방과 테리 초극세사 원단의 비치타올을 제작해 해피빈 펀딩을 진행, 목표 금액의 160%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장애인중립복지관
보호작업장 파니스

장애인 근로자 임금 34% 향상

파니스는 2024년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량 주문 등의 노력으로 큰 폭의 매출액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그 덕분에 장애인 근로인들에게 전년도 대비 평균 34% 오른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푸르메와 함께 자랐다

2024 전국장애인체전 MVP 김윤지 선수

김윤지 선수 "푸르메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에게 마치 깜짝 선물 같았던 MVP 수상의 기쁨을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어요. 이 상금이 푸르메 친구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 김윤지 선수
우) 이종률 푸르메스포츠센터 사업팀장

2024년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김윤지 선수가 수영 5관왕과 함께 MVP를 수상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동계체육대회의 노르딕스키 4관왕과 MVP를 차지한 이후 또 한 번의 쾌거입니다. 장애인체육계 최고 유망주로 떠오른 그는 MVP 상금 300만 원을 푸르메재단에 기부하며 많은 이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푸르메스포츠센터에서 재활하며 수영에 흥미

김윤지 선수 "초등학교 입학 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찾아 상암으로 이사 왔는데 마침 집 앞에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과 푸르메스포츠센터가 생겼어요. 장애인 전용 샤워장과 휠체어 경사로를 갖춘 수영장이 생긴 게 제일 좋았죠."

이분척추증 척수수막류로 하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김윤지 선수는 재활을 위해 수(水)치료를 받으면서 수영의 재미에 흠뻑 빠졌고, 푸르메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이종률 팀장 "중학생이던 윤지는 성인 비장애인들과 같이 훈련했어요. 푸르메스포츠센터가 장애-비장애 통합 훈련 시스템을 잘 갖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울의 장애인체육시설이 총 6개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곳은 매우 드물거든요."

푸르메스포츠센터는 통합반과 재활반을 거의 절반의 비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반이 늘어날수록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은 높아지고, 장애인의 사회성과 실력이 빠르게 향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 기관들 역시 이를 잘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종률 팀장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은 대부분 1:1 혹은 아주 소수 그룹으로 이뤄져서 비용 부담이 크데, 지원 예산은 거의 없어 기관 자부담율이 80%에 달해요. 결국 수익성이 높은 비장애인 수업을 늘릴 수밖에 없죠. 장애인 운동재활 전문가를 찾기 힘든 것도 한 이유고요."

이런 어려움에도 푸르메스포츠센터는 장애인 그룹 프로그램 개발, 재활-통합반 이동 시스템 체계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처음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종률 팀장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나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푸르메재단의 가치에 맞는 통합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 덕분에 김윤지 선수는 재활과 취미로서의 수영을 넘어 성인 비장애인과 함께 훈련하고 경쟁하며 어떤 장애인 선수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 역시 2주 전부터 푸르메스포츠센터에서 훈련하고 레슨을 받은 덕에 얻은 귀한 결실입니다.



장애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 주고 싶어



김윤지 선수는 "집 가까운 곳에 원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던 게 참 운이 좋았다"며 "장애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능을 치른 그는 특수교육과에 지원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장애가 있어도 꿈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푸르메 또한 김윤지 선수와 같은 꿈을 꾸니다. 사회가 만든 낮은 천장에 갇혀 뛰어오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장애인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2, 제3의 김윤지 선수가 탄생하길 바라면서요.

2024년 푸르메재단은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어주신 개인 및 기업 기부자 여러분 덕분에 장애어린이의 재활과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푸르메재단 뇌손어린이재활병원과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의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치료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장애어린이에게 더 나은 재활치료 환경과 재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에서 일하는 장애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2025년에도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해 기부자님과 함께 만들어 갈 희망과 변화를 기대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협력팀/마케팅팀 일동

함께 나누는



총 모금액

6,533,258,239 원

총 기부자 수

개인기부자 11,353 명

기업기부자 180 곳

더미라클스 회원

총 42 명

(신규 회원 2명)

52 2024 모금 캠페인 & 행사

54 함께하는 이웃 | 기부자

56 함께하는 이웃 | 파트너

58 인터뷰 | 푸르메천사가게

2024 Purme Campaign with You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어린이들이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로 나아가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기적의 병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이 지금도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4월 27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개원 8주년을 기념해 '미라클365 푸르메런'이 열렸습니다. 푸르메재단 홍보대사인 가수 선과 함께 8년간 진행해 온 기부 마라톤입니다. 2024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총 900명의 러너가 참여했지요. 출발지인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 모인 참가자들은 목적지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까지 3km, 5km, 8km 중 신청한 거리만큼 달렸습니다. 300명의 온라인 참가자는 각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달리고 결과를 인증했습니다.

백경학 상임대표와 함께한 걸어서 동대문 속으로



2023년 백경학 상임대표가 가이드로 나서 북촌 구석구석을 걸었던 '걸어서 북촌 속으로'의 호응에 힘입어 2024년에는 서민의 오랜 이야기를 간직한 동대문 역사 기행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광장시장'부터 평화시장 입구의 전태일 추모 동상, 흥인지문(동대문), 옛 전차회사(경성궤도회사) 터, 백남준 집터, 가수 김광석의 집 등을 돌아보며 골목마다 서린 서민의 희로애락을 들었습니다.

“서울 곳곳의 숨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좋은 가을날에 근사한 선물을 받았어요.”

병원으로 찾아온 산타 할아버지! 푸르메리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제가 있는 병원에도 오실 거죠?” 장애어린이들의 작은 소망이 기부자님의 나눔 덕에 현실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병원에서 힘겹게 재활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장애어린이를 위해 11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 푸르메리크리스마스 캠페인! 기부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목표액의 50%를 초과한 3,000만 원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121명의 장애어린이가 선물을 받고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웃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10월 12일, 하남 미사 경정공원에서 제12회 마이크로 패밀리 킥앤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이크로 킥보드가 벌써 12년째 개최하는 행사로, 참가비 전액이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의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해 기부됩니다. 킥보드를 타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2km 킥앤런 코스와 사격, 킥보드 링 던지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즐겁게 놀며 기부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 가족이 즐거운 기부 마이크로 패밀리 킥앤런



나만의 기쁨을 기념하는 미라클데이



미라클데이 캠페인은 일상의 작은 기쁨을 기념합니다. 많은 기부자가 '사귀 지 1700일 되는 날',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를 부른 날', '아이 돌잔치 기념', '영어 공부 100일 완료한 날' 등 보통의 하루 속에 찾아낸 나만의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눴습니다. 2024년에는 미라클데이를 기념할 수 있는 '미라클데이 포토프롬스(6종)와 스티커(4종), 컨페티'를 제작해 기부자들이 일상의 기쁨을 알리고 여러 사람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선물했습니다.

함께하는 이웃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기부하며 진정한 나눔을 보여준 수많은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푸르메천사가게

'고미정' 천태우 대표



서울 연희동에서 한식당 '고미정'을 운영하는 천태우 대표는 2023년 배우로 활동하는 동생 천우희 씨와 경기도 여주의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을 방문한 후 푸르메천사가게를 신청했습니다. "장애직원과 비장애직원이 함께 어우러져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런 곳이 우리 사회에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는 천태우 대표.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점에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푸르메소셜팜 장애 직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직장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요즘 참 쉽지 않거든요. 늘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과 자기 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일일카페 수익금 전액 기부

박세민·이재승·

전시안·구본울 군

초등학교 6학년 박세민·이재승·전시안·구본울 군은 꽃피는 4월의 봄날,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돕기 위해 일일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cafe PINK BLoS-Som'. 단 하루를 위해 아이들은 5개월간 수차례 사업계획서를 고쳐 쓰며 준비했습니다. 카페 콘셉트부터 원가를 고려한 가격 책정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빠르게 제조할 수 있는 메뉴 리스트, 모객 전략, 기부처 조사분석까지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카페 영업 당일에는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정신없이 음료를 판매했습니다. 고생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기부한 것이 아쉬울 법하지만, 그새 아이들은 한 뼘 성장한 모습입니다.

"고객들의 기부 덕분에 총 134만 원을 모았어요. 전년도에는 13만 원이었는데, 1년 새 10배가 된 거예요. 내년에는 1,300만 원 기부해야죠! 힘들게 번 돈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쓰인다는 게 정말 부듯합니다."



함께 나눔

'기부는 나와의 약속'

강영준 기부자



2017년부터 매년 100만 원을 보내온 기부자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도 시간도 없이 깜짝 선물을 보내온 이는 강영준 기부자입니다. 8년 전, 의미 있는 나눔을 할 곳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푸르메재단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머니 권유로 푸르메재단에 소액을 기부한 적이 있어요. 당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광고보다 실질적인 사업에 집중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부처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기부는 자신과의 약속이기에, 매년 100만 원을 기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 해를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는 강영준 기부자. 그는 일상에서 장애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애 유튜브가 '세상 밖에 나가게 되면서 삶이 즐거워졌다'고 말하는 걸 듣고 생각해 보니 주변에서 장애인을 만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바꿔야 할 건 많지만 우선 건물 경사로나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를 늘리는 등 기존에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한다면 장애인들의 삶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요?"

졸업전시회 수익금 기부

경희대 교육대학원 아동미술교육자과정

경희대 교육대학원 아동미술교육자과정 선생님들이 졸업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했습니다. 전시 참여자는 총 9명. 김지연, 문상원, 박소연, 배지은, 양혜란, 윤미진, 이수미, 정송희, 최은별 선생님입니다. 자신들의 재능을 장애어린이와 장애청년을 위해 쓰고 싶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지요. "푸르메재단 발달장애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요긴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들을 지도한 김경희 교수는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푸르메재단의 슬로건에 무척 공감했다고 합니다. 9명의 제자 또한 '아이들이 행복해야 건강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푸르메가 장애인에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듯, 저희는 미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좋은 선생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urme Foundation Annual Report

함께하는 기업

2024년에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정된 삶을 돕기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민 기업들. 이들의 나눔 덕분에 푸르메재단은 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장애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넥슨재단



넥슨은 2022년부터 장수게임 마비노기와 함께 푸르메재단과 '나누는맘 함께하고팜'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하며 발달장애 청년들의 일터인 푸르메소셜팜과 무이숲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넥슨 임직원의 봉사활동과 마비노기 유저의 기부 이벤트를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발달장애 청년들의 평범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장애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재활치료비를 후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어린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활치료 전문기관인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의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덕분에 장애어린이들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맞춤형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코스콤



코스콤은 푸르메재단과 15년간 동행하며 장애인이 IT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장애인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학업, 취업,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업을 꿈꾸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IT 창업 아이템 공모전'을 개최해 총 5팀을 선정, 멘토링과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고려아연(주)



고려아연은 푸르메소셜팜에 모종, 배지, 비료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방울토마토 생산을 도왔습니다. 또한 장애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일터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직원들은 지역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자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억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푸르메천사가게

'맛있는여수' 윤혜림 대표



서울에서 여수로 귀촌해 간장게장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맛있는여수'의 윤혜림 대표. 개업과 동시에 푸르메천사가게를 신청하며 푸르메천사가 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여수에서 '녹차게장식당'을 운영하는 푸르메천사이지요. 윤 대표가 기부를 시작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 그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있을 위험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마' 하고 생각했지만, 도윤이는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푸르메재단에 대한 신뢰

윤 대표는 도윤이의 재활치료를 하다가 푸르메재단을 알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발달장애 청년들의 일터 푸르메소셜팜도 알게 됐습니다. 푸르메소셜팜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청년들도 일하고 있었기에 윤 대표 부부는 도윤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로 푸르메소셜팜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직원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푸르메소셜팜의 한 발달장애 직원이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푸르메소셜팜은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직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설 용기를 얻고 있지요. 윤 대표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녹아들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를 잘 실천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푸르메소셜팜을 보며 푸르메재단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여수에도 발달장애인이 즐겁게 일할 일터를 만드는 게 꿈

경제학을 전공한 그녀는 도윤이를 낳은 뒤 사회적경제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학위 과정 동안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도윤이와 도윤이의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그 일터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발달장애 직원 1~2명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더 오래 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실증연구를 통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적용될 만큼의 대규모 사업장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근속연수가 길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문기관에 기부하는 것이 현재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푸르메재단에 기부하게 되었지요.



"맛있는여수를 통해 어머니의 손맛을 지키고, 여수 로컬푸드의 우수함을 알려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겁니다. 차차 기반을 다져 10년 안에 여수에도 푸르메소셜팜이나 무이슈터럼 도윤이와 도윤이의 친구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윤 대표는 여수에서 30년간 요식업을 해온 어머니의 게장 요리법을 전수받으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유학부터 이화여자대학원에서의 박사과정까지 오랜 기간 타지에서 생활한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맛있는여수'에는 그녀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가 모두 녹아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1세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이어나가는 것', '도윤이가 즐겁게 일할 일자리를 만드는 것', '고향 여수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 그녀에게 맛있는여수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발달장애인 민간고용률은 30%이지만 지방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방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차근차근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 윤 대표가 앞으로 여수에서 만들어 나갈 세상이 무척 기다려 집니다. 그녀가 푸르메재단을 믿고 푸르메천사가 돼주었듯이, 그녀가 만들어 나갈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순간 푸르메재단이 힘껏 돕겠습니다.

푸르다, 푸르메



푸르메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미션

장애인이 보통의 삶을
누리도록 사회변화를
선도한다

비전

혁신적 재활 및
자립 서비스로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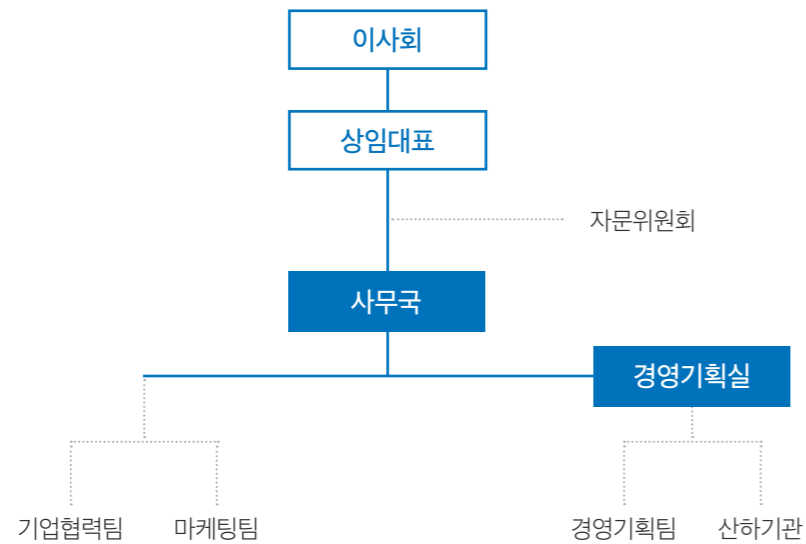
핵심가치

전문성, 도전성,
투명성, 공감성

주요사업

- 재활의료** 장애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통합적 재활서비스를 펼칩니다.
- 장애가족지원** 장애어린이와 비장애형제자매, 그리고 부모까지 가족 단위로 통합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복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도록 돕습니다.
- 자립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조직



이사회

푸르메를 이끌어 갑니다.



명예이사장 김성수
성공회 주교,
우리마을 총장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



공동대표 박태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공동대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 변호사



상임대표 백경학
前 CBS,
동아일보 기자



감사 김문규
태울회계법인 이사



감사 이남주
법무법인 세종
선인공인회계사



이사 원택 스님
해인사 백련암 주지



이사 김용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사 광재복
前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장



이사 김종구
세신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백은령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사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보대사

푸르메의 가치를 알려 나갑니다.



선
가수



이지선
작가, 교수



김민재
축구선수



이정후
야구선수



이종범
야구코치, 前 야구선수



엄홍길
산악인



서경덕
홍보전문가, 교수



이근호
스포츠해설가,
前 축구선수

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사업 운영에 대한 지혜를 모읍니다.	이종수 위원장 사단법인 청년의들 이사장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동건 前 울산MBC 사장
	이용숙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재권 KBS 이사
	이은애 청년사회적경제지원단체 씨즈 이사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현수 前 국방정신전력원장

지원심의위원회 장애가족지원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심사·선정합니다.	강용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유은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자기주도지원부 부서장
	공진웅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교수	윤재영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남욱 연세나무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이규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
	김지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치료실장	이상진 아주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김희정 서울의료원 의료사회복지팀 차장	이상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획실장
	문상진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장	이원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원장
	민여진 스마일재단 국장	이은아 비장애형제 자조모임 <나는> 대표
	박대운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담당관	조명민 장애인 부모
	박미혜 한국희귀난치질환 연합회 前 사무총장	조준희 세브란스봄치과 원장
	박유경 종로아이존 센터장	차지민 연세나무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서경주 서울장애인부모회 前 감사	최미영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은주 미래동행 센터장	최진희 서초아이발달센터장
	석도준 웰플란트치과 원장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지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부원장

기부컨설팅위원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박태규 위원장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선희 휴먼트리 대표
	김현수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본부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법률자문위원회 재단의 법률문제를 자문·지원합니다.	유욱 위원장 태평양 NPO법률지원센터장	이양원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전상용 전상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경호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대표변호사	

산하기관 현황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푸르메재단 산하기관입니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시민과 기업, 정부와 지자체의 힘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T. 02-6070-9000 H. www.purmehospital.org	푸르메어린이발달재활센터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재활·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발달 전문 기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2층 T. 02-6395-7025 H. www.ipurme.org	종로아이존 발달장애 어린이에게 다각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2층 T. 02-6395-7045 H. www.jongnoaizone.or.kr
---	--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이웃과 함께 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속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700 H. www.seoulcbid.or.kr	과천시장애인복지관·다누리센터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경기도 과천시 문원로 40 T. 02-2185-8000 H. www.happyseed.or.kr	종로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3층 T. 02-6395-7070 H. www.jpurme.org
---	--	---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91 H. www.seoulats.or.kr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64 H. www.seoulats.or.kr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체육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1층 T. 02-6070-9270 H. www.purmesports.or.kr
--	---	---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책을 읽는 문화공간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1층 T. 02-6070-9286 H. mplib.mapo.go.kr/purme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 2층 T. 02-6070-9290 H. mpvrc.modoo.at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파니스 중증장애인에게 제빵기술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 T. 02-440-5880 H. seoulpanis.modoo.at
---	---	--

행복한베이커리&카페 장애청년들이 전문 바리스타의 꿈을 펼쳐가는 희망찬 일터 T. 070-4242-2626 H. happy-cafe.co.kr	푸르메소셜팜 장애청년이 즐겁게 일하며 자립하는 국내 최초 스마트농장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247 T. 031-882-5181 H. www.purmeffarm.com	무이숲 장애·비장애의 경계 없이 모두를 위한 베이커리 카페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247 T. 010-8107-2477
---	---	--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비영리재단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장애어린이와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푸르메재단에 있습니다. 푸르메재단의 동의 없이 글, 사진, 그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원문의 02-6395-7008 이메일 hope@purme.org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801-927975(예금주: 재단법인 푸르메)



@purmefoundation



purmefoundation2005



푸르메재단



푸르메재단



purmefoundation